

兩親家庭과 缺損家庭 子女의 스트레스 認知度에 관한 比較研究  
－富川市 女高生을 中心으로－

玄 溫 剛\* · 李 順 德\*\*

인하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A Study on Stress of Children Comparing Two-parent Families and  
Other Types of Families  
—Girls' High School Students in Puchon City—

Hyun, On-Kang\* · Rhee, Sun-Deark\*\*

*Dep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Home Economics,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quire basic materials to help the students Others of families in their homes through understanding them. This study was based on the questions asked to 100 students without parents in their homes and 100 students in standard homes. Percentage, T-test, counseling sample were used for statistical report.

The following are the analysed results of this study.

1. Among the ten events, except for family life and economic problems, there were no distinguished contrasts between the students without parents in their homes and the students in standard homes.
2. The factors influencing stress are mainly plan for future, social environment, school life and learning and students without parents are especially affected by economic problem.
3. Comparing students without parents with one another in stress, the strdents without parents have economic problem and deficiency of affection, the students without father economic problem and their mothers health, the students without mother the difficulty of house affairs and emotional uneasiness of family.

The students with step-mother have much misunderstandng because of the lack of conversation among their family.

The students with step-father hardly kconverse with their father and feel uneasy in family life. Based on all can be gailed thes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

1) The students Other Types of families are stressed much more than the students in standard homes in family life and economic problems.

2) All Students are Stressed by bad environment, the plan of future, school and learning.

3) Comparing the Students without parents with one another, the students without parents have economic problem and deficiency of affection, the students without father economic problem and their mothers health, the students without mother house affairs and emotional uneasiness off family.

The students of step-father and step-mother have the misfortune standing by the lack of conversation, the deficiency of affection and the uneasiness off family life.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인 必要性

本研究의 目的是 精神的, 身體的, 社會的, 教育的으로 重要한 青少年期에 있는 缺損家庭자녀들이 日常生活에서 經驗하는 스트레스(Stress)가 무엇인지 판명하여 缺損家庭자녀를 理解하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데 그 目적이 있다.

1960年代 以後의 韓國社會는 工業化를 中心으로 高度의 經濟成長과 함께 人口의 都市集中, 貧富의 격차 등이 심해졌고, 家族制度도 核家族化 되었으며, 教育의 普遍化 現狀으로 女性도 社會活動과 더불어 지위가 상승되었다. 이러한 모든 生活環境의 變化는 個人的 意識構造과 行動의 변화를 招來하게 되었고, 지나친 合理主義와 個人主義는 非人間化와 利己主義로 변모했다. 이런 현대에 사는 青少年들은 가치흔돈과 人間疎外現狀에서 많은 心理的인 不安과 葛藤으로 방황하고 있다.

89년 梨大 한국문화연수원의 통계에 의하면 각종의 청소년 4천5백명을 조사한 결과 본드 14%, 대마초 7.7%, 히로뽕 2.7%, 마약 2.6% 각성제 복용 31.6%를 경험했다고 되어 있다.<sup>1)</sup>

89년 법무부의 「범죄백서」에 의하면 性범죄 35% 가 10代로 나타나 있다. 서울 시립 기술원의 경우 89년 한 해동안 그곳을 거쳐간 윤락여성 중 38.2% 가 10代라고 말하며, 88년 법무부에 의하면 10代 범죄가자 중 35.6%가 결손가정이라고 말한다.

흔히 「問題兒는 문제의 家庭과 문제의 父母로부터 키워진다」는 등의 말은 한결같이 家庭環境의 重要性을 역설한 것이라 볼 수 있다.<sup>2)</sup>

결손가정 중 父결손 가정인 母子家庭이 89년말 현재, 보사부에 의하면 7만5천8백 89가구나 되고 母子家庭이 된 사유가 배우자 사망이 75%, 이혼·별거등이 13.4%, 祖父母 세대주가 6.1%, 배우자의 심신장애가 3.4%, 미혼모가 2.1%로 나타나 있으며, 이혼증가 현상은 해마다 증가하여 85년에는 48,085 건이나 되어 이혼국 11위라고 한다.<sup>3)</sup>

이와 같이 오늘날의 사회가 혼란 할 때 더욱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게 된다.

가족은 우리생활에 매우 강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및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sup>5)</sup>

父母와 女子로 構成되어 있는 基本的인 家庭形態에서 父나 母, 또는 父母가 모두 不在中일 때 이러한 家庭에서는 父母의 役割이 없거나 兩分됨으로써 兩親家庭의 女子가 받는 스트레스보다 스트레스의 程度가 매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缺損家庭女子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調節統制하고 合理的인 對話를 하여 그들이 社會에 適應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研究가 必要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問題의 提起

1. 兩親家庭子女(two-Parents family)와 缺損家庭子女는 생활사건 영역에 따라 스트레스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양친이 없는 자녀, 편모자녀, 편부자녀, 계모자녀, 계부 자녀간에는 생활 사건 영역에 따라 스트레스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가?

## II. 理論的 背景

### 1. 缺損家庭의 影響 및 實態

#### (1) 缺損家庭의 影響

教育工學辭典<sup>5)</sup>에 의하면 家庭環境을 形態에 따라 物理的 環境과 心理的 環境으로 區分하고 있다. 物理的 環境이란 눈에 보이는 物質이나 金錢을 投資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종래에는 이러한 物理的 環境을 重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한편 心理的 環境은 家庭內의 人間關係를 들수 있고, 人間關係에서 강조점은 父母와 女子의 관계에 두고 있다.

현온강은 父母와 子女의 관계에서 父母가 兒童을 養育하는 것은 그 兒童의 長點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父母도 人間인 이상 父母가 兒童에게 느끼는 감정의 질은 그 아동의 행동에 의거한다. 그러나 아동의 행복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그의 행동에 의거하지 않으며永久의이다.<sup>6)</sup>

현온강은 또 父母의 目的은 “兒童은 父母의 統制에서 獨립시키고 부모의 領域을 떠나게 준비 시키는데 있다”라고 말했고, 최영희는 “父父母의 價値觀, 그리고 목표와 역할이 주요하다”라고 강조했다.<sup>7)</sup>

이와같이 家庭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缺損家庭은 양친중一方의 役割不在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양육 및 경제적 곤란 등을 수반하며 心理的으로 볼 때 父親不在나 母親不在는 그 이상의 意味를 갖는다.

家族員에게 缺損을 가져올 경우에 그들이 차지했던 役割이 正當的 機能을 裏失 함으로써 가족의 役割構造上에 變化를 가져 오게 되고, 남은 가족들은 새로운 反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될수 있다.<sup>8)</sup>

즉 父나 母의 결손은 子女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子女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父의 缺損家庭에서 子女에게 미치는 影響을 이 회자는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는 특히 아들이 性役割 知識을 얻게 하는데 중요한 役割을 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同性의 모델로, 딸에게는 그가 앞으로 關係를 가질 成熟한 男子의 모델로서의 役割을 한다. 훌륭한 아버지는 子女가 하는 일에 대해 關

心을 기울이고 子女가 아버지의 하는일에 대해 關心을 기울이게 도우며 子女가 自身의 目標를 成就하도록 돕는다.

아버지의 不在는 많은 問題行動을 일으키고, 知能이나 人性發達에 나쁜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가장 큰 影響力은 精神的 發達, 性的 發達, 人性 發達, 知的 發達의 領域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9)</sup>

成種漢은 性役割學習에 있어, 아버지 存在와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즉 “아버지라는 存在는 딸에게 表現의 役割 類型을 學習하도록 격려하고 아들에게는 手段의 �役割 類型을 學習하는데에 必要한 模型을 제시한다.”는 것이다.<sup>10)</sup>

그러나 父나 母의 缺損家庭에서는 이러한 學習을 못하게 되므로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다.

金興圭는 人間은 映像自我像을 基準으로하여 自己를 생각하고 判斷하며 反應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他人과의 相互作用에 의해 처음에는 몸짓에 의해서, 그 다음은 意味있는 言語的 象徵에 의하여 自己의 行為와 말이 他人에게 어떠한 反應을 일으키는지를 알게되며, 나아가 自己에게 투사되는 타인의 反應을 模倣하게된다. 이렇게 他人의 態度를 模倣, 內面化하고 남의 役割을 스스로 체득, 實行함으로써 동일시 現狀을 보이게된다.

“2세는 父母라는 필터(filter)와 家庭이라는 렌즈(lens)를 통해, 社會化를 보고 自我化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결손이 없는 現代의 보통家庭도 취업 여성의 증가로 인한 母의 不在, 父 역할의 不在, 대화의 부재와 같은 현상이 노출되어 더불어 가정의 교육적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sup>11)</sup>

姜智遠은 “아버지는 일찍 귀가 해야 한다”고 하였다. 매일 밤늦게 귀가, 子女와 時間을 充分히 갖지 못한다면 이는 곧 「心理的父權不在現象」으로 나타나 缺損家庭이나 다를 바 없게 된다. 또 父母의 不和는 女子들에게 失望感과 함께 父母에 대한 信賴와 尊敬心을 잃게되고 싸움에 대해 잘못된 正當性을 부여하게 되고, 無意識 중에 暴力에 익숙해지고 가정에 대한 嫌惡感이 생기면서 급기야는 家出하는 原因이 된다.<sup>12)</sup>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이 가정환경과 父母와 역할을 강조한다.

#### (2) 결손가정의 실태

보사부의 89년 말 통계를 보면 전국의 모자가정은 7만 5천 8백 89가구이며, 구성원은 24만 4천 7백 10명이다. 모자가정이 된 사유가 배우자 사망(75%), 이혼, 유기, 별거(13.4%), 祖母세대주(6.1%), 배우자의 심신장애(3.4%), 미혼모(2.1%)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나이는 10대(0.2%), 20대(8.4%), 30대(54.8%), 40대(28.8%), 50대(4.9%), 60대이상(2.9%)이다.

전국 모자 가정의 자녀 취학 현황은 국민학교(49.9%), 중학교(30%), 고등학교(19.4%), 대학교(0.8%)이며, 어머니의 학력은 무학(12.1%), 국졸(45.5%), 중졸(27.2%), 고졸(13.8%), 대졸이상(1.4%)이다.

모자 가정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12%), 하위서비스직(57.3%)<sup>1)</sup>, 농공 수산근로직(16.9%), 농수산업(4.8%), 자영서비스직(7.5%), 사무직(0.8%), 전문직(0.6%)이며, 모자가정의 주거형태는 자가(28.5%), 전세(9.2%), 월세(12.1%), 전월세방(36.6%), 더부살이(12.5%), 보호시설(1.2%)이며 모자가정이 사용하는 방은 1개(61.1%), 2개(32%), 3개 이상(6.9%)이다.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은 5만원 미만(35.7%), 5~10만원(26.6%), 10만원이상(17.7%)이다.

모자가정의 숫자가 크게 늘고 있으며, 모자가정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이들은 빈곤(49.7%)과 아동 양육비(30.7%)로 꼽고, 그 다음 가족질병 및 실업 등도 어려움으로 말하고 있다.<sup>13)</sup>

미국의 경우 1977년부터 1984년에 이르기까지 편부모 가족의 수는 두배가 넘게 늘어났다. 현재 18세 미만 아동의 23%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혼률의 증가와 미혼모의 놀라운 증가(500%)에 기인한다. 즉 18세가 되기 전에 미국 아동의 반 가량이 편부모 가정에 사는 경험을 한다.

전체 편부모 가족중 편부의 비율은 약 10%로서, 편모보다는 취업률이 높다. 1985년 편부 가정의 평균 수입이 \$22,164이었고, 편모가정은 \$10,694였다는 것으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여기에 첨가하여 편부들이 더 나이가 많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편부의 단점이 있다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과 가정 일을 함께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sup>14)</sup>

金興圭는 현대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의 現狀은 離婚의 增加요, 다른 하나는 母

性愛의 抛棄라고 하며 마지막의 現狀은, 家庭만의 神聖不可侵의 領域이었던 生殖, 出產機能이 壊失, 弱化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離婚增加 現狀의 경우, 統計資料에 의하면, 1977년에 30,000件, 1978년에 40,066件이 離婚하여 계속해서 增加現狀을 보여준다.

실례로 83년까지만 해도 全國에서 하루 平均 200쌍이 결혼하고, 그중 20쌍이 離婚했으며, 서울에서 1日平均 160쌍이 결혼하는 한편 16쌍이 이혼한다고 집계 되었으며, 1984年 3月 이후의 경우 서울 家庭法院 관내에서만 하루 平均 40쌍 內外의 離婚이 성립 되었다는 데에 우리의 심각한 問題가 아닐수 없다.

또 1985年的 경우 離婚訴訟과 協議 離婚 申請 사건은 68,948件으로 이중 離婚이 許可된 것은 48,085件이고 보니 結果的으로 약 10萬名 가까운 夫婦가 남남이 되었다. 더욱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들 離婚 夫婦中 結婚 5年을 못넘기고 離婚한 夫婦가 67.77%라는 점이며, 지금 現在는 世界 11位의 離婚國이다.<sup>15)</sup> 87年 末 世界第一의 離婚率은 미국이며 맞벌이 夫婦가 57%나 된다. 다시말해서 기혼여성의 57%가 職場에 나가고 있다.<sup>16)</sup>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미혼모의 문제점을 현실감있게 각 단체의 통계 자료를 拔萃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여성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90년 7월말 현재 낙태시기를 놓쳐 아이를 낳게되는 미혼모의 85%가 10代후반~20代전반으로 이들은 생식능력은 있으나 성에 대한 지식과 대처할 능력은 매우 낮다. 그리고 行動性은 강한 것이 청소년의 특성이므로 이 특성에 맞춰 성교육을 강조하지 않는 한 10代의 낙태와 미혼모는 점점 늘어나고 그들과 우리사회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리라 생각한다.<sup>17)</sup>

서울 시립 여자기술원의 경우 85年~89年동안 이곳을 겨쳐간 윤락여성은 3948名이고 이중 10代가 30%를 차지했고, 89년 한해 만은 38.2%라고 말한다. 특히 14~16세의 어린소녀가 85년에는 28명에 불과했으나 86년은 84명, 87년은 80명, 88년은 84명, 89년은 92명으로 늘어나 85년에 비하면 3배이상 늘어났다.<sup>18)</sup>

89년 법무부의 「범죄백서」에 의하면 강간사건의 경우 1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낸도별로 보면 14세이상 20세미만의 전체 소년 범죄

는 89년 한해동안 88년에 비해 16%가 증가했으나, 강간등 성범죄는 같은 기간보다 31.6% 늘어났다.<sup>19)</sup>

88년 주부교실 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음란폭력물 비디오를 본 10대는 15세이하가 34.7%, 19세이하가 42.1%라고 했다. 같은 해 말 YMCA에서는 과川과 서울 지역등에서 중고생 1천 2백여명을 조사한 결과 음란도서를 항상 또는 자주 접한다는 학생이 24.5%였으며, 보는 장소는 학교 32%, 집 25%, 만화가게 15% 순이다.<sup>20)</sup>

또 성범죄와 관련이 있는것으로 藥物濫用을 들수 있다. 법무 연수원에 의하면 88년 전국 소년원에 수감 중인 약물 남용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조사는 약물 복용이 이들의 성적 관심과 성범죄에 얼마나 연관있는지 말해준다.

약물남용 소년범의 71.2%가 교제하는 여자가 있거나 성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본드나 대마초, 신경 안정제등을 복용, 환각상태에서 強盜強姦, 強制醜行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전체의 51.5%였다. 양물복용의 절반 이상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sup>21)</sup>

미국의 미혼모 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Card와 Wise(1978)는 같은 사회계층내의 ‘십대엄마와 아동’과 ‘보통 엄마와 자녀’를 비교 연구하였는데, 십대엄마와 아들의 경우 생활에 더 나쁜 영향을 마치고 특히 십대엄마의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며, 커다란 단점으로는 생활주기에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엄마의 교육을 중단시키고, 결국은 낮은 소득, 지원금 의존, 기술부족등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는데, 출산후 12년후까지 35% 엄마들 만이 고등학교를 마쳤다고 했다.

또한 Joy G, Dryfoos(1983-1984)는 십대 임신은 성교육, 가족계획, 중절 수술등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정책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여 다른 십대들이 십대부모가 되는것을 원치 않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2)</sup>

이것을 보면 미국의 이혼률과 미혼모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보면 우리나라로도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차츰 증가 추세에 있고 더불어 결손 가정아도 증가하는 실태이다.

## 2. 스트레스(Stress)의 개념

스트레스라는 用語는 널리 쓰이고 있으나 스트레스의 개념은 抽象性이 높은 複合的 개념으로서 개념적 정의가 어렵고, 보편화된 일치점의 결여로 인해 각 학문마다 각기 다른 이론적 가정에 기초를 두어 연구하고 있으므로, 그 정의가 일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sup>23)</sup>

Melson은 지금까지의 스트레스에 대한 概念的 定意는 ‘個人에게 있어서 正當反應으로부터의 離脫’ ‘人間과 環境사이의 不適應’ ‘個人의 適應 節圍를 벗어난 刺戟에 의해 야기되는 불편한 感性’ ‘身體의 自然의 平衡狀能을 混亂시키거나 混亂시킬 수 있는 어떤 影響’ ‘環境刺戟이나 個人內部에서의 要求가 한個人의 適應ability을 壓倒 할 때 經驗되는 緊張狀態’ 등 다양하며 또한相反된 견해를 보이기 조차한다고 지적했으며,<sup>24)</sup> 박용자는 “青少年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인지”에 관한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人間에게 유해한 것, 그리고 根本的으로 원치 않는 것으로 認識하고 있다.<sup>25)</sup>”

概念的 定義는 스트레스를 相互 거래적 關係에 있어서 自然의 恒常性 平衡狀態를 벗어난 心理的, 情緒的, 身體的인 부담, 壓迫, 危機로 概念化하고 스트레스라 用語를 ‘스트레스 生活事件’ 또는 ‘스트레스 생활’ ‘유해한 刺戟’으로 표현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원이 되는 生活事件(life events)과 同一하게 보게 된다.

Mason은 지금까지 研究되어온 生理的, 心理的 여러가지 스트레스에 관련된 文獻들을 考察한 다음 스트레스는 대체로 세가지 측면에서 定義된다고 하였다.

첫째, 스트레스를 어떠한 種類의 變化를 일으키는 刺戟으로서 스트레스원(Stressor)과 刺戟을同一視 하는 입장과

둘째, 刺戟에 대한 反應으로서 스트레스를 보는 입장이며,

세째, 스트레스를 個人과 環境 사이의 相互作用으로 把握하려는 慣例論의 입장으로 集約된다 고 하였다.<sup>26)</sup>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개념을 생활사건에서 받은 심적 부담, 불편함, 위기, 압박, 손상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3. 家族 스트레스

家庭과 家族은 우리 生活에 매우 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잡한 가족관계에서 가족은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Hill(1949)은 가족 스트레스의 4가지 요인을 아래에 지적했다.

① 남편, 아내, 자녀나 조부모의 죽음 또는 이혼, 별거등으로 인한 가족원의 감소나 분리.

② 계부·계모나 원하지 않은 자녀의 출생, 혹은 이전에 고의로 집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과 같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

③ 간통, 알코올 중독, 부양 의무 불이행, 등과 같은 '풍기문란'이나 '불명예감'

④ 이상의 요인들이 복합되어 자살, 수감, 살인, 정신병 등을 일으키는 것이 포함된다.<sup>27)</sup>

가족내에서 스트레스 反應으로는 精神狀態인 공포, 불안, 분노, 우울감과 동물적 側面으로 자세, 얼굴표정, 공격, 싸움으로 나타난다.

스트레스 인지에 대해 Paykel(1971)의 연구를 보면 일반가정에서, 약혼, 자녀결혼, 자녀출산, 승진 등은 비교적 낮은 점수이고, 자녀나 배우자 사망, 배우자의 外道 등은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sup>28)</sup>

스트레스 인지는 가족내에서도 개인마다 스트레스를 다르게 경험하고 다르게 반응하게 되며 가족원의 연령과 각자가 처한 생활 주기에 따라 다양하다.

수직적 스트레스 요인은 이전 세대에서 전수되어 온 것으로, 관계를 맺고 기능해 가는 방식이며, 가족태도, 기대, 규칙들이 이에 속한다.

수평적 스트레스 요인은 가족이 극복해야 하는 예측 가능한 문제나 발달적인 문제, 그리고 생활주기를 봉괴시키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을 모두 포함한다.

현재 생활문제로 받는 압력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고, 또 수직적 스트레스 요인과 상호 작용을 하여 가족체계의 봉괴를 야기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양친부모 가족이나 일부는 확대가족, 혼합가족, 또는 편부모가족이나 이전 배우자의 자녀를 둔 두 부모 또는 한 부모만 있는 가족에서 태어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1982년에 편모와 함께 사는 18세 이하의 자녀들이 전체의 20%, 편부와 함께 사는 자녀들이 2%이다. 또 1980년대 초 미국에 남편없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여성이 15%에 육박하고 있으며, 부인없이 자녀 양육을 하며 생활하는 남성이 전체의 3%였다. 대부분 이혼으로 생긴 것이지만 남편없이 자녀를 키우려는 독신 여성도 증가하고 있다. 1982년 출생한 미국아동 중 18%가 미혼모에서 태어난 사생아이다.

이런 편부모 가족에서 6~7세 자녀를 두 부모중 거의 모든 아버지가 직장에 다니며 어머니중 3/4이 취업모이다. 따라서 편부·모 가족의 주요 문제는 과제가 과중하다는 것이며, 이것은 자녀를 가진 편모의 생활 주기에서 나타나며, 이외에도 사회적 소외, 심해진 불안, 우울감, 고독이 더해져 편부·모에게 영향을 준다.<sup>29)</sup>

편부·모 가정에서의 경제적인 문제도 편모의 수입이 적은 데다가 아버지가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게 되면 아동은 부모간의 싸움에서 인질이 되기 쉽다.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계부·모 가족은 家庭生活이 복잡하며 그 수가 늘어가고 있어 1980년대 초 미국에서 6명의 아동중 1명이 계부·모 밑에서 있었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생활상의 문제점은 다양하며 복잡하다. 계부·모의 학대, 오해 등으로 계부·모의 자녀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父母亲의 사망 또는 유기로 인한 양친이 없는 자녀들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들의 스트레스 또한 어느 결손 자녀보다 크리라 본다.

## III. 研究方法 및 節次

### 1. 尺度構成

〈문제1〉은 질문지를 제작하여 분석하였고, 〈문제2〉는 직접 상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문제1〉의 질문지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先行研究를 참조하여 스트레스 질문지를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최해림, 박용자, 박선희 등이 사용한 스트레스 생활사건 척도를 참고하였고, 본 연구자가 사전에 예비조사와 면담을 한 후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1991

년 2월 12일과 20일에 20명에게 예비 조사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0.95로 높게 나타났다.

#### (문제1)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내용은

- 1) 가정생활 ; 5문항(1~5)
- 2) 경제문제 ; 5문항(6~10)
- 3) 진로문제 ; 5문항(11~15)
- 4) 학교·학습문제 ; 5문항(16~20)
- 5) 외모문제 ; 5문항(21~25)
- 6) 이성교제문제 ; 4문항(26~29)
- 7) 종교문제 ; 4문항(30~33)
- 8) 건강·죽음문제 ; 5문항(34~38)
- 9) 사회환경문제 ; 5문항(39~43)
- 10) 성문제 ; 4문항(44~47)으로 되었다.

이들 47개의 스트레스의 사전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0개 하위 스트레스는 유발사건 영역별로 인지도를 계산하였다.

#### 2. 調査對象 및 期間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결손가정자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1개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기초 담임 교사가 조사한 학생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니 전체 학생 1870명중 결손가정자녀가 101명으로 나타났다. 그중 1명은 장기결석으로 조사에서 빠지고 1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양친없는 자녀 5명, 편모 자녀 77명, 편부 자녀 6명, 계모 자녀 5명, 계부자녀 2명). 양친가정자녀는 임의표집하여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조사를 하였고 조사 대상자들이 성의 있게 답하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상담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려서 1990년 9월부터 1991년 3월까지 약 7개월간 실시하였고, 조사 장소는 학교 상담실을 이용하여 방과 후에 하였다.

#### 3. 자료의 분석방법

本 研究資料에 대한 統計的 處理는 仁荷大學校 電子計算所의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에 의해 분석 처리하였다.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2) 양친가정자녀와 결손가정자녀의 영역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도를 비교 하기 위하여, T-test 하였다.

- (3) 양친없는 자녀, 편모 자녀, 편부 자녀, 계모 자녀, 계부자녀들의 영역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F 검증을 하였으나, 사례수가 편중되어 통계적 의미가 회박하므로 연구자가 직접 상담한 후 상담사례 결과를 가지고 질적인 연구방법으로 비교하였다.

#### IV. 結果 및 解析

##### 1. 調査對象者の一般的 性格

調査 對象者の一般的 性格은 〈표 I〉과 같다.

調査 對象者は 전체가 200명으로, 兩親家庭자녀 100명과 缺損家庭자녀가 100명(兩親없는 學生 5명, 偏母 77명, 偏父 6명)이다.

繼母 10명, 繼父 2명 연령 분포는 만 16세부터 18세까지이며 17세 學生이 35.5%이다.

宗教의 分布는 기독교 45%로 가장 많고, 종교가 없는 학생도 34%로 나타났다. 出生 順位는 양친가정자녀는 첫번째가 46%로 가장 많고, 결손가정자녀는 네번째가 35%로 가장 많다.

학생이 느끼는 가정경제 상태는 정상가정자녀는 상위권 2%, 중위권 90%, 하위권 8%이나 결손가정자녀는 상위권이 없고 중위권이 80%, 하위권이 20%이다.

父의 학력은 양친가정자녀의 父 100명 중 고졸자가 44명이고 대졸이상도 25명으로 나타났고, 결손가정자녀의 父 18名 중 고졸이 10명이고, 대졸이 2명으로 父의 學力은 高卒이 가장 많다.

母의 학력은 정상가정자녀의 母 100명 중 중졸이 35명, 고졸이 34명이고, 결손가정자녀의 母 89名 중 중졸이 32명, 국졸이 30명으로 되어 있다.

父의 職業은 전체적으로 生產職이 15%, 建設職이 10.5%로 가장 많고, 사무직 8.5%, 운수직, 판매직 순이다.

母의 직업은 정상가정자녀의 母는 28%가 직장에 나가고 결손가정자녀의 母는 52%가 직장에 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어머니는 생산직에 종사하고 판매직, 서비스직 순이다.

학생의 장래 직업에 있어서는 71.5% 專門職을 원했고 통신, 사무직 순이다.

(표 I)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인	구 分	가 정 형 태					
		양 친 가 정 자 녀		결 손 가 정 자 녀		전 체	
		N	%	N	%	N	%
연 령	15 세	9	9.0	9	9.0	18	9.0
	16 세	30	30.0	27	27.0	57	28.5
	17 세	38	38.0	33	33.0	71	35.5
	18 세	23	23.0	31	31.0	54	27.0
	계	100	100.0	100	100.0	200	100.0
종 교	없 음	33	33.0	35	35.0	68	34.0
	천주교	13	13.0	8	8.0	21	10.5
	기독교	42	42.0	48	48.0	90	45.0
	불 교	11	11.0	8	8.0	19	9.5
	기 타	1	1.0	1	1.0	2	1.0
	계	100	100.0	100	100.0	200	100.0
출 생	외동딸	1	1.0	6	6.0	7	3.5
	첫 째	46	46.0	20	20.0	66	33.0
	둘 째	28	28.0	27	27.0	55	27.5
	셋 째	13	13.0	12	12.0	25	12.5
	넷 째	12	12.0	35	35.0	47	23.5
	계	100	100.0	100	100.0	200	100.0
순 위	상	2	2.0	•	•	2	1.0
	중	90	90.0	80	80.0	170	85.0
	하	8	8.0	20	20.0	28	14.0
	계	100	100.0	100	100.0	200	100.0
	가 정 경 제						
父	국 족	10	10.0	3	3.0	13	6.5
	중 족	18	18.0	2	2.0	20	10.0
	고 족	44	44.0	10	10.0	54	27.0
	전문대	3	3.0	1	1.0	4	2.0
	대 족	22	22.0	2	2.0	27	13.5
학 력	父안계심	•	•	82	82.0	82	41.0
	계	100	100.0	100	100.0	200	100.0
	국 족	21	21.0	30	30.0	51	25.5
	중 족	35	35.0	32	32.0	67	33.5
	고 족	34	34.0	25	25.0	59	29.5
母	전문대	4	4.0	•	•	4	2.0
	대 족	6	6.0	2	2.0	8	4.0
	母안계심	•	•	11	11.0	11	5.5
	계	100	100.0	100	100.0	200	100.0

변 인	구 分	가 정 형 태					
		양 친 가 정 자 녀		결 손 가 정 자 녀		전 체	
		N	%	N	%	N	%
父 직 업	생산적	27	27.0	3	3.0	30	15.0
	건설적	18	18.0	3	3.0	21	10.5
	운수적	11	11.0	2	2.0	13	6.5
	통신적	9	9.0	1	1.0	10	5.0
	사무적	15	15.0	2	2.0	17	8.5
	판매적	12	12.0	1	1.0	13	6.5
	서비스적	4	4.0	3	3.0	7	3.5
	전문적	4	4.0	3	3.0	7	3.5
	父안계심	-	.	82	82.0	82	41.0
계		100	100.0	100	100.0	200	100.0
母 직 업	생산적	14	14.0	32	32.0	46	23.0
	건설적	1	1.0			1	0.5
	사무적	2	2.0	1	1.0	3	1.5
	판매적	9	9.0	10	10.0	19	9.5
	서비스적	2	2.0	7	7.0	9	4.5
	전문적	-	.	2	2.0	2	1.0
	주 부	72	72.0	37	37.0	109	54.5
	母안계심	-	.	11	11.0	11	5.5
	계	100	100.0	100	100.0	200	100.0
장 래 직 업	건설적	1	1.0	•	0 • 0	1	0.5
	운수적	•	0.0	1	1.0	1	0.5
	통신적	11	11.0	6	6.0	17	8.5
	사무적	6	6.0	11	11.0	17	8.5
	판매적	3	3.0	3	3.0	6	3.0
	서비스적	4	4.0	1	1.0	5	2.5
	전문적	72	72.0	71	71.0	143	71.5
	의료적	2	2.0	6	6.0	8	4.0
	기 타	1	1.0	1	1.0	2	1.0
계		100	100.0	100	100.0	200	100.0

## 이 검증

## 2. 〈문제 1〉의 검증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문제 1〉은 다음과 같다.

〈문제 1〉 양친가정자녀와 결손가정자녀는 생활사  
건 영역에 따라 스트레스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가?

이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한 결과는 〈표  
II〉과 같이 나타났다.

(1)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인지도에 대한 차

가정생활에서 정상가정자녀와 결손가정자녀가 받는 스트레스의 인지도 차이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결손가정자녀는 정상가정자녀보다 가정생활에서 어려움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父母가 사망하였거나 이혼 별거로 父나 母가 결손 되거나 兩親이 안 계실 때에 이들이 환경에 적응 하려면 가정생활에서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계부, 계모와의 갈등, 편모인 경우 父의 그리움과 경제적 어려움, 편부인 경우 母의 그리움과 家事의 어려움, 양친이 안 계셔서 친척집에서 생활할 때의 父母이 그리움과 형제와 생활할 때 경제적 어려움, 편부인 경우 母의 그리움과 형제와 생활할 때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본다.

#### (2) 경제문제에서의 스트레스 인지도에 대한 차이검증

정상가정자녀와 결손가정자녀의 경제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인지도 차이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계모 계부인 경우 親父母가 아니기 때문에 용돈이나 참고서 구입비를 받아 내기가 어려우며 양친이 없는 경우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 그들은 양친이 없기 때문에 형제나 친척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편모인 경우에 父결손으로 수입이 적고, 母가 직장을 가졌어도 일반조사에서 나왔듯이 많은 母가 단순 生產직에 근무하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편부는 편모보다는 경제문제에서는 어려움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家事에 어려움과 정서적 안정에 문제가 많다.

#### (3) 진로 문제에서의 스트레스 인지도에 대한 차이검증

정상가정자녀와 결손가정자녀의 진로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도 차이는 평균 점수가 정상가정자녀가 2.57이고, 결손가정자녀는 2.59로 통계적으로 별 의미있는 차이는 없다. 그러나 두집단 모두 평균점수가 매우 높아서 청소년 전체가 진학과 직업 선택이라는 문제에 상당한 갈등과 불안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학벌 위주 사회로 인한 날로 높아가는 입시 경쟁율과 고졸자 취업제한은 청소년들에게 아주 상당한 부담과 압박감을 주고 父母의 과다한 기대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진로문제로 인한 청소년들의 불안과 갈등은 현사회와 教育의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4) 학교생활 및 학습에서의 스트레스 인지도에 대한 차이검증

정상가정자녀와 결손가정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습에서의 스트레스 인지도 차이는 평균 점수가 정상가정자녀가 2.31이고, 결손가정자녀는 2.35로 통

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으나 평균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학교생활과 학습은 스트레스 요인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하겠다. 시험과 평가에 대한 불안과 긴장, 성적의 부진과 실패는 심각한 좌절과 우울에 빠지며 정신적 부담을 느끼게 한다. 또한 같은 또래의 교우와의 갈등과 소외, 교사의 편애와 갈등, 학교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등은 청소년들에게 피로를 줄 것이다.

#### (5) 외모에서의 스트레스 인지도에 대한 차이검증

정상가정자녀와 결손가정자녀의 외모에서의 스트레스 인지도차는 평균 점수가 정상가정자녀는 2.05이고, 결손가정자녀는 1.97로 통계적으로는 별 의미있는 차는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외모에 관심이 높다고 나타났다.

청소년기에는 외모에 관심이 크고 타인과의 비교 평가로 깊은 소외와 열등감과 우월감을 체험하게 된다. 또래집단내의 자기파시욕을 조장하게 되며 기성세대와의 가치관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 (6) 이성교제에 있어서 스트레스 인지도에 대한 차이검증

정상가정자녀와 결손가정자녀의 이성교제에서의 스트레스 인지도 차는 평균 점수가 정상가정자녀가 1.54이고, 결손가정자녀는 1.53으로 통계적으로 별 의미있는 차이는 없고 평균값도 낮은 편으로 이성교제에 의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성교제는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들 중의 하나이며 새로운 관계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순수한 동기와 기회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한 이성교제는 다른 스트레스를 불러 일으키므로 건전하고 밝은 이성교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 (7) 종교에서의 스트레스 인지도에 대한 차이검증

정상가정자녀와 결손가정자녀의 종교에서의 스트레스 인지도차는 평균 점수가 정상가정자녀가 1.56이고, 결손가정자녀는 1.60으로 통계적으로 별 의미 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조사에 나왔듯이 66%의 학생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간혹 교계의 비리나 신앙에 대한 회의와 갈등이 있고, 종교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을 아쉬워 하는 수가 있으나, 청소년들의 종교는 그들의 대외 활동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고, 정신적인 위안과 안정을 찾는 방법이 되고 있다.

(8) 건강 및 죽음에 있어서 스트레스 인지도에 대한 차이점증

정상가정자녀와 결손가정자녀의 건강 및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도 차는 평균점수가 정상가정자녀가 1.97이고, 결손가정자녀는 1.95로 통계적으로 별 의미있는 차이는 없으나 관심이 크다.

건강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청소년들은 입시로 인해 만성적 피로와 과도한 긴장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회의를 갖는 경우가 있고, 정신적 피로와 긴장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 시험때가 되면 두통이나 설사를 호소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9) 사회환경에서의 스트레스 인지도 차이점증

정상가정자녀와 결손가정자녀의 사회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도 차는 평균점수가 정상가정자녀가 2.66이고, 결손가정자녀는 2.62로 통계적으로 별 의미있는 차이를 찾아볼 수 없으나, 두 집단 모두 평균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두집단 모두 10개의 생활사건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을 나타낸 것이 사회환경으로,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사회환경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화로 인구의 도시집증과 공해를 당면한 우리의 과제이고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 등하교 시의 교통혼잡, 늦은 하교시의 불량배에 대한 두려움, 무절제한 상품의 광고, 소음 공해, 음란 비디오, 불량 만화등 우리의 청소년들을 너무 열악한 사회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10) 性에 있어서 스트레스 인지도에 대한 차이점증

정상가정자녀와 결손가정자녀의 性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도 차는 평균 점수가 정상가정자녀가 1.80이고, 결손가정자녀는 1.71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찾아볼 수가 없고 평균값도 낮다. 그러나 청년기에 있어 性문제를 생애 단계중 가장 강력한 욕구가 분출되는 시기로서 도외시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요즘과 같이 性폭력과 관련된 범죄가 늘어나고 미혼모가 증가하는 어려운 시기에 父母와 教師의 바람직한 性教育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11) 전체 스트레스 인지도에 대한 차이점증

정상가정자녀와 결손가정자녀의 전체 스트레스 인지도 차는 평균 점수가 정상가정자녀가 1.97이고, 결손가정자녀는 2.06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다. 10개 영역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생활과 경제문제에서만 有意味한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8개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별 意味있는 차이를 찾아 볼 수가 없다.

(12) 正常家庭 子女와 缺損家庭 子女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을, 평균 점수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正常家庭 子女는 ①사회환경 ②진로 ③학교·학습문제 ④외모 문제 ⑤건강·죽음 문제 ⑥性문제 ⑦家庭生活 문제 ⑧경제문제 ⑨종교문제 ⑩이성교제 순이다.

缺損家庭 子女는 ①사회·환경문제 ②진로문제 ③학교·학습문제 ④家庭生活 문제 ⑤경제문제 ⑥외모문제 ⑦건강·죽음 문제 ⑧性 문제 ⑨종교문제 ⑩이성교제 순이다.

두 집단 간에 상위 요인은 차이가 없으나 중위 요인에서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또 많은 시간을 학교와 학습에 보내는 만큼 학교와 학습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정상가정 자녀와 결손가정 자녀사이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정 생활과 경제문제로 나타나 있다. 정상가정 자녀들은 가정생활과 경제문제가 하위 요인인데 비해, 결손가정 자녀들은 상당히 높은 요인으로 나타나 있다.

### 3. <문제 2>의 검증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문제2>는 다음과 같다.

<문제2>양친이 없는 자녀, 편모자녀, 편부자녀, 계모자녀, 계부자녀간에는 생활사건 영역에 따라 스트레스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가?

이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 F검증한 결과는 표Ⅲ과 같다. 그러나 사례수가 편중되어, 통계적 의미가 회박하기 때문에 상담사례를 통한 결과를 시사하고자 한다.

모든 사례를 소개 할 수는 없으므로 특징적인 몇 개 가족 몇만 소개하겠다.

(표Ⅱ) 정상가정자녀와 결손가정자녀의 스트레스 인지도 차이

	양 친 가 정 자 녀(100)		결 손 가 정 자 녀(100)		T-Value	2-Tail PROB
	M	S · D	M	S · D		
家庭生活 문제	1.66	0.58	2.23	0.70	-6.16	.000***
경제 문제	1.56	0.63	2.01	0.80	-4.37	.000***
진로 문제	2.57	0.77	2.59	0.72	-0.15	.880
학교·학습 문제	2.31	0.76	2.35	0.64	-0.40	.689
외모 문제	2.05	0.73	1.97	0.65	0.75	.455
이성교제 문제	1.54	0.71	1.53	0.59	0.08	.936
종교 문제	1.56	0.55	1.60	0.70	-0.48	.634
건강·죽음 문제	1.97	0.75	1.95	0.75	0.24	.808
사회환경 문제	2.66	0.76	2.62	0.74	0.34	.737
性 문제	1.80	0.59	1.71	0.48	1.14	.257
전체	1.97	0.38	2.06	0.41	-1.54	.125

\*\*\*P&lt;.001

### (1) 양친이 없는 자녀의 스트레스

양친의 死亡이나 遺棄로 인하여 친척이나 형제와 살고있기 때문에, 父母에 대한 그리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 매사에 자신이 없고, 소극적인 성격이 많다.

#### 〈사례1〉

영주의 부모님은 영주가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 가시고 언니 셋과 살다가 큰언니는 결혼하고 언니 두명과 살고 있다. 둘째언니는 회사에 다니고 셋째 언니는 미용실에서 일한다.

가장 여러운 점은 경제적인 면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500만원 전세방인데, 주인 집에서 방값을 올려 줄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전에는 국가에서 얼마의 보조금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고, 작년에 '모기관'에서 10만원 장학금 받은 것이 고작이다.

언니들이 家事を 하기 때문에 家事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다. 그러나 父母의 슬하에서 자라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고, 친구들로부터 본인은 소외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성적은 중위권이고 용모가 단정하다.

희망직업은 "워크맨이나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 〈사례2〉

경우의 父는 경우의 父는 국민학교에 다닐때

병으로 死亡하셨고, 母는 중학교때 병으로 사망하셨다.

이혼한 오빠와 회사다니는 언니와 조카(3세)가 같이 살고 있다.

어려운 문제는 家事와 조카의 양육이다. 오빠와 언니가 회사에 가고 경유이도 학교에 오게 되면 조카만 집에 두고 문을 잠그고 학교에 오게 된다.

학교에 올 때마다 조카가 불쌍하고, 집에 돌아가면 언니와 같이 집안일을 해야 한다.

성적은 하위권이고 복장이 불량한 편이며 항상 팔수가 적은 편이다.

희망 직업은 교사이다.

### (2) 편모 자녀의 스트레스

父가 사망했거나, 離婚·別居等으로 인하여 母와 함께 同居하는 자녀로 편모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는 가정 경제와 母의 건강, 또는 父에 대한 그리움도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 〈사례 1〉

선자가 1세때 父 사망하셨고, 母는 58세인데 공장에서 일하신다. 오빠 2명과 언니 3명이 있다.

선자의 가장 큰 걱정은 어머니의 건강으로 어머니가 공장에서 오시면 다리가 부어있고 밤에 주무실 때 앓는다는 것이다.

선자는 성적이 상위권이지만 대학에 진학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에서이다.

선자의 불만은, 사회계층간에, 부의 차이로 친구들이 잘사는 것을 보면 부럽고, 얼마 노력하지 않고도, 잘살수 있는 부류들을 보면 맙다고 했다.

선자의 어머니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적은 보수이고 고생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든다고 했다.

#### (사례 2)

영선이의 父母는 영선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혼하시어 父는 재혼하셨다.

처음에는 계모술하에서 생활했으나, 오빠와 영선이가 친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말썽을 자주 부렸기 때문에 中 2때부터 친어머니와 지금은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父를 그리워하고 친어머니가 삶을 때가 있다. 아버지가 생활비를 보내 주시는데,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로 어머니는 밤에 여관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학교에 올 때는, 아침식사 준비와 도시락을 준비해야하고 학교에서 귀가하면 어머니가 안계시기 때문에 집에 가기가 싫다.

가끔 계모와 생활 할 때를 그리워하기도 한다.

그럼 그리기에 소질이 있으나, 성적이 하위이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포기 상태이다.

#### (사례 3)

형숙이는 父母가 별거 하시기 때문에, 母와 생활하고 있으며 母는 53세로 은행에서 청소를 하신다.

걱정은 母의 건강이고, 특히 母가 정서적으로 불안하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만한다.

다음으로 문제는 가정경제로 母의 수입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였다.

#### (3) 편부자녀의 스트레스

母가 사망하였거나, 이혼 별거 등으로 父와 생활하는 자녀로, 어려운 문제점은 家事와 학교 생활을 병행하여야 하고, 家庭이 안정이 안된다는 점이다.

#### 〈사례 1〉

미야의 父는 47세로 설비업을 하시며, 미야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혼하셨다. 이혼 사유는 母의 부정한 행위 때문이다.

지금은 조모와 父 그리고 남동생과 생활하고 있는데, 전에 계모가 1년 살았던 때도 있었다.

어려운 문제는 父가 약주가 심하고, 조모와 父가 자주 다투는 일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고 남동생이 집에 놀아 있지 않고 밖에서 놀기만 해서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 한다.

성적은 상위권이고 장래 희망직은 경찰관이다.

#### 〈사례 2〉

영미의 父는 건축 일을 하시고 母와는 이혼하셨다. 영미와 여동생과 父가 생활하기 때문에, 영미는 어려서부터 김치 담그는 일에서부터 모든 家事を 했다.

집에 들어 가기 싫으나 억지로 들어간다. 그리고 허전해서 집에 들어가면 잘 때도 항상 T.V를 켠다.

용모가 단정하나 공부하는 습관이 되지 않아 성적은 하위권이며 장래 희망 직업은 판매직이다.

#### 〈사례 3〉

영순이의 父는 도장만드는 일을 하시고 영순이가 어렸을 때 父母는 이혼 하셨다고 한다.

영순이의 가장 어려운 점은 家事와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참고서를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다.

영순이의 학교 성적은 우수한 편이고 남동생도 공부를 잘하여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

장래 희망은 세무직원이 되는 것이다.

#### (4) 繼母 子女의 스트레스

繼父母家庭은 도전적이고 복잡한 장기두기나, 미묘하고 뒤얽힌 거미줄로 비유되고 있다. 그러한 비유가 어떻든 간에 계부모가족은 복잡하고 그 수가 늘고 있다.

재혼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부모나 자녀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계모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들이 거부한다면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계모에 대한 선입관과 오해를 없애야 하겠고 계모도 자기 친자식과 같은 애정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겠다.

계모자녀가 가장 큰 문제점은 오해가 많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다.

#### (사례 1)

순미 父母는 순미가 어려서 이혼 하셨으며, 이혼한 이유는 순미 親母가 정신질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순미 父는 재혼하셨고, 계모는 몇 번 유산 끝에, 딸을 낳아, 4세가 되었는데, 유산된 까닭을, 계모는 순미 탓이라고 한다(놀라게 했기 때문).

순미는 아침에 동생의 뱀래를 하고 오후에 귀가하면 뱀래와 집안일을 한다고 했다. 순미의 손은 머슴의 손처럼 거칠었다.

순미의 계모는 성질이 포악하여 순미를 폭행하고 또 父와의 관계를 나쁘게 만든다고 한다.

순미는 집에서 父와 그리고 계모와도 말하지 않고 지내며 되도록이면 빨리 독립하기를 원하고 있다.

순미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父로부터 “너는 너의 친어머니를 닮아서 고집이 세다”라는 말이다.

#### (사례 2)

영미가 국민학교에 다닐때 父의 강요로 父母는 이혼하게 되고, 그 후에 父는 재혼하여 여동생을 하나 낳았다. 父는 회사에 다니고 또 계모의 재산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으나, 계모는 영미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취업 하길 원하고 있다.

집에 가서 계모와 사이가 나빠지는 이유는 일을 너무 많이 하도록 시키고, 다정한 말을 건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 (5) 繼父 子女의 스트레스

앞에 계모자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부가족 또한 이해하기 어렵고 또 복잡하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자의 권력이 크고 남존여비사상이 강해서 계부밑에서 생활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특히 어려운 점은 용돈을 타쓰는 것과 서로 반아들일 수 없는 애정이 문제다. 또 가족인데 대화가 적고 가정 생활이 불안하다.

#### (사례 1)

미선이가 어려서 父母는 이혼하시고, 미선이는 외갓집에서 성장하다가 국민학교에 입학하면서, 어머니와 생활하였다.

계부는 해외 취업일때가 많았으나 현재는 무직으로 집에 있다.

계부의 성격은 우유부단하고, 불성실한 편이어서 어머니가 고생한다.

어머니는 항상 너무 계부의 눈치를 살피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부가 밀고 쉽다고 한다. 미선이는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낸다.

미선이는 “남자를 중요해요”라고까지 말했다.

#### (사례 2)

순정이가 3살 때 父母가 이혼 하였는데, 이혼한 이유가 父의 성격이 난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無能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母의 얼굴이 꽉고 날씬하였다. 母는 이혼 후 바로, 자식이 셋 있는 교수와 재혼하였는데, 18세 위인 이혼한 사람이었다.

순정이는 유치원다닐때 까지도 계부가 親父인줄 알고 자랐다. 학교에 들어가서, “김 순정”이라고 불러서 그때부터 의심이 갔다. 계부는 성이 석氏이기 때문이다. ‘다른 오빠들은 석 씨인데 나만 김씨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국민학교 3학년때 어머니께서 사실을 말씀해주셨다.

‘중 3때 親父로 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왔으나, 커서 만나기로하고 만나지 않았다.

지금의 계부는 좋은 분이시고 그 분을 닮고 싶은데 母가 가끔 “너는 너의 친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게으르다”고 말할때가 가장 싫고 또 “말안 들으면 너의 친아버지한테 보내겠다”하는 말을 들으면 겁이 난다고 했다.

(6) 결손 가정자녀들간의 스트레스를 비교해 보면, 양친이 없는 자녀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애정 결핍이다.

〈표Ⅲ〉 결손가정아들의 가정형태별 스트레스 인지도 차이

가정형태(名) 평균·표준편차 스트레스 영역	양친없는 아동(5)		편 모 (77)		편 부 (6)		계 모 (10)		계 부 (2)		F-FROB
	M	S·D	M	S·D	M	S·D	M	S·D	M	S·D	
가정생활 문제	2.68	0.72	2.14	0.69	2.70	0.37	2.24	0.67	3.20	0.57	.0379*
경제 문제	2.40	0.86	1.98	0.79	1.60	0.47	2.10	0.97	2.90	0.71	.2453
진로 문제	2.64	0.52	2.51	0.69	2.83	0.34	2.82	0.96	3.40	1.69	.2905
학교·학습문제	2.40	0.42	2.32	0.65	2.53	0.73	2.30	0.69	2.80	0.28	.8026
외모 문제	2.00	0.71	1.98	0.63	2.10	0.91	1.88	0.81	1.80	0.28	.9664
이성교재 문제	1.60	0.38	1.48	0.57	1.50	0.42	1.80	0.91	1.87	0.17	.3878
종교 문제	1.60	0.52	1.52	0.61	1.96	1.15	1.77	0.83	3.00	1.10	.0224*
건강·죽음문제	2.56	0.51	1.89	0.73	1.63	0.49	2.10	0.94	2.60	0.85	.1579
사회환경문제	3.00	0.47	2.52	0.73	3.3	0.72	2.78	0.86	2.90	0.14	.0775
性 문제	1.85	0.38	1.71	0.49	1.50	0.22	1.65	0.49	2.37	0.53	.2401
전체	2.27	0.19	2.00	0.40	2.16	0.18	2.14	0.60	2.68	0.17	.0941

\*P&lt;.05

편모의 자녀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母의 건강을 걱정했고, 편부의 자녀는 家事의 어려움과 家庭의 정서적인 불안정이다.

계모의 자녀는 가족간에 대화가 적고, 오해가 많으며, 서로 애정이 적다는 것이고 계부의 자녀도 家庭生活이 불안하고, 대화가 적으며, 애정이 적다는 것이다.

## V. 結論 및 提言

(1) 결손가정자녀가 정상가정자녀보다 모든 생활사건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특히 가정생활과,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父나 母의 결손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물론 정신적인 어려움도 커서, 결손가정자녀들은 정상가정자녀보다 불안하고, 두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家庭의 중요성과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2) 正常家庭과 缺損家庭의 모든 청소년들이 열악한 사회 환경을 걱정하였고, 불확실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며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학습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높다.

正常家庭의 자녀들은 가정생활과 경제문제에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으나, 缺损家庭의 자녀들은

가정생활과 경제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3) 缺损家庭의子女들 간에 스트레스를 비교하면 양친이 없는 자녀는 경제적인 문제와 애정 결핍이다. 편모 자녀는 경제적인 문제와 母의 건강을 걱정했으며, 편부 자녀는 家事의 어려움과 家庭의 정서적인 불안정이다. 계부·모의 자녀는 가족간에 대화의 부족으로 인한 오해와 애정의 부족 그리고 家庭生活의 불안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표준화 되지 않은 것이므로 표준화된 새로운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더 나아가 결손가정자녀의 스트레스가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2) 본 연구에서는 결손 가정자녀의 스트레스 인지도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었으므로, 결손가정자녀를 스트레스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그들을 이해하고 돋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3) 우리 모두 家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손 가정이 생겨나지 않도록 새로운 계몽과 교육이 필요하다. 또 父母-子女關係는 愛情的인 관계를维持하도록 해야 하겠다.

(4) 중등학교 교육은 지식 전달 중심의 진로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 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며, 무너지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회복해야 한다.

(5) 열악한 사회 환경이 스트레스의 큰 원인임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 좋은 사회환경을 만들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 参考文獻

- 1) 한국일보, 4. 26, P.14, 1990
- 2)-3) 金興圭, 教育社會學(서울:蠻雪出版社), PP. 166, 1990
- 4) 李在然·崔泳姬共譯, 의사소송과 가족관계(서울:蠻雪출판사), P. 17, 1990
- 5) 교육공학사전편집위원회, 교육공학사전(서울: 교육공학사전 편찬위원회), P. 43, 1967
- 6) 玄溫剛外共譯, 兒童發達의 理解(서울: 교육과학사), P.233, 1990
- 7) 崔泳姬外共譯, 兒童發達의 理解(서울: 교육과학사), P.263, 1990
- 8) 李效再, 家庭과 社會(서울: 進明출판사), P.298, 1976
- 9) 이희자外共譯, 兒童發達의 理解(서울: 교육과학사), PP.269-286, 1990
- 10) 成種漢, 青少年(서울: 洪明精版社), P.289, 1988
- 11) 金興圭, 상계서, P.169
- 12) 姜智遠, “青少年 비행豫防을 為한 子女教育指針” 한국일보, P.14, 1990. 8. 6.
- 13) 한국일보, P.14, 1990. 8. 6.
- 14) Sanford M. Dornbusch and kathryn D. Gray : Feminism children, and the new Families. : The Guilford Press New York hondon, 1990.
- 15) 金興圭, 상계서, P.167
- 16) 한국일보, P.14, 1990. 4. 18.
- 17) 한국일보, P.14, 1990. 8. 27.
- 18) 한국일보, P.14, 1990. 4.
- 19) 한국일보, P.18, 1990. 4. 23.
- 20) 한국일보, P.14, 1990. 4. 22.
- 21) 한국일보, P. 4, 1990. 4. 26.
- 22) Sanford M. Dornbusch and kathryn D. Gray, op. cit.
- 23) E. karen Claus, The Nature of Stress : Living with Stress and promsting Well-Being, ed by karen E. Claus, J.t. Rathings(st. Louis, Toronto : C. V.Mosby co.), PP.9-13, 1980
- 24) G.F.Melson., Family and Environment, Minneapolis : Burgess publishing P.264, 1980
- 25) 박용자,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인지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24, 1988
- 26) J.W Mason, “A Historical view of the Stress field”, Journal of Human Stress, m1975.
- 27) 李在然·崔泳姬共譯, 상계서, P.348.
- 28) 정민자, “夫婦家庭의 家庭스트레스와 社會心理的的家庭次元에 관한 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P.11, 1983
- 29) 李在然·崔泳姬, 상계서, P.350.